

# 광양 시민들 손으로 만든 '제1호 감동정원' 공개

51개 기관·단체 및 공무원 참여  
마동생태유원지 일원에 75개소  
시민참여 탄소중립 실천 사례  
푸른광양만들기 범시민운동도

광양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는  
도시 속 정원이 탄생했다.

13일 광양시에 따르면 푸른 광양 만들  
기 시민 감동정원 조성 행사가 지난 11일  
광양 마동생태유원지 일원에서 열렸다.

이번 행사는 생활권 도심에 시민이 직  
접 만들고 가꿀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해 시  
민들에게 일상 속 나무 심기 실천의 소중  
함을 알리고 시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의  
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지속 추진하고자 마  
련됐다.

푸른광양만들기 범시민운동 일환으로  
열린 이날 행사에는 51개 기관·단체 시민  
과 광양시·광양시의회 12개 실·국단위 공  
무원 등 450여 명이 참여했다.

참가자들은 마동생태유원지 내에 세계  
절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16  
㎡(약 5평) '감동정원' 75개소를 조성했  
다. 또 시민들의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동  
참을 위한 반려식물 나눔 행사도 진행했  
다.

시는 정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매  
월 1회 '푸른광양만들기 실천의 날'을 운  
영하고, 정원조성에 참여한 시민과 공무  
원이 물주기,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  
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원 가꾸기를 추진  
해 나갈 계획이다.



광양시는 지난 11일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어나가는 시민 감동정원 조성 행사를 추진했다.

광양시 제공

정인화 광양시장은 "이번 1호 감동정원  
조성이 시민들에게 정원문화가 가까워질  
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"며 "푸른광양  
만들기 범시민운동을 확산시켜 시민들이

광양시 어딜 가든 자연과 함께 쉽고 여유  
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  
도록 공원, 녹지 등에 수준 높은 정원을 만  
들어 지속가능한 명품 녹색도시를 조성해

나가겠다"고 밝혔다.

한편 광양시는 지난 3월 옥룡면 백계산  
동백정원 일원에서 '푸른 광양 만들기' 범  
시민운동 선포식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

를 진행하는 등 광양시 전역에 푸른 숲과  
꽃이 어우러진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탄소  
중립 실천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.

광양=안영준 기자



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10일 철강항만과를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.

광양시 제공

## 정인화 광양시장, 직원들과 적극 소통

사기 진작 위해 철강항만과 방문  
글로벌 미래도시 조성 노고 격려

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원들의 사기 진작  
을 위해 적극 소통 행보에 나섰다.

광양시는 지난 10일 활력있는 직장 분  
위기 조성을 위해 '광양시가 응원합니  
다!'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.

이날 정인화 시장은 제철과 항만산업의  
활성화, 국제 자매-우호도시와의 교류 및  
협력 증대, 수산업 활력 증진 등을 통해 지  
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조성  
중인 '철강항만과'를 찾아 직원들의 노고  
를 격려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정 시장은 국제 우호도시인 필리핀 가  
가안테오로시 교류 연수공무원에게 명예  
임용장을 전달하며 "국제 교류 네트워크  
확장에 힘써달라"고 응원했다.

이어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, 가장 좋았  
던 해외 도시,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, 사  
춘기 자녀와의 소통법 등 직원들이 여러  
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했고, 정 시장은

성심성의껏 유쾌하게 답변했다.

특히 정 시장은 "일도 중요하지만 가족  
과 많은 시간을 보낼 것"을 당부했다. 또  
본인만의 설거지 노하우를 알려주며 나자  
도 가사를 분담해야 함을 강조해 여직원  
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.

이어 "광양시의 핵심 산업인 제철과 항  
만산업 활성화에 매진하는 직원들의 노고  
에 감사드린다"며 "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  
이자 기동인 철강·항만산업의 기반이 탄  
탄해야 그 위에 이차전지, 수소 등 신산업  
이 발전할 수 있다.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 
생산 거점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 
광양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 
동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  
록 한층 노력해주길 바란다"고 말했다.

한편 광양시는 매월 1개 부서를 대상으  
로 '광양시가 응원합니다!'를 운영해 시  
장과 직원 간 활기찬 소통뿐만 아니라 시  
정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  
굴해 나가는 조직 내 소통의 장을 마련하  
고 있다.

광양=안영준 기자

## 광양시, 지방세정 연찬회 세외수입 분야 '우수상'

'... 공유 모빌리티' 주제 발표

광양시가 '2024년 전남도 지방세정 연  
찬회' 세외수입 분야에서 '우수상'을 수상  
했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지방세정 연찬회는 지난 8일부터  
10일까지 사흘간 신안군라마다프라자&  
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전남도 22개 시·  
군 세무 담당 공무원 350여 명이 참석한  
가운데 열렸다.

연찬회에서 시·군별 지방세입 확충 및

지방세정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 발  
표와 평가 및 시상이 진행됐다.

광양시는 김소영 정수와 주무관이 '슬  
기로운 공유 모빌리티 생활'이라는 주제  
로 연구과제를 발표했으며, 15개 시·군이  
열린 경연을 벌인 결과 세외수입 분야 우  
수상 표창과 함께 시상금 80만원을 수상  
했다.

연구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중  
교통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 
급부상한 전동 킥보드 등의 공유 모빌리

티에 대해 운영자, 이용자 등의 수요가 급  
증함에 따른 신규 세원 발굴 가능성과 세  
입 증대 방안 모색 등을 다뤘다.

조상진 정수과장은 "이번 연찬회에서  
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평소 직원들이 연  
구모임을 통해 축적한 연구 활동의 결실"  
이라며 "앞으로도 지방세입에 대한 지속  
적인 업무연찬과 다양한 신규 세원 발굴  
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 
더욱 향상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광양=안영준 기자

## 광양시보건소,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

광양시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7월31  
일까지 표본가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  
으로 '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'를 실시  
한다고 13일 밝혔다.

지역사회건강조사는 '지역보건법'에  
따라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수  
행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, 지역 건강  
통계를 생산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  
업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.

광양시보건소는 원활하고 정확한 조사  
를 위해 지난 1월 권역별 책임대학인 전남  
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  
다.

조사 대상은 통계적 방법론에 따라 선  
정된 표본가구의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  
인 900여 명이며, 조사 대상 가구에는 선  
정통지서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소책  
자가 전달된다.

조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4명  
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 
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

조사항목은 △건강행태(흡연, 음주  
등) △만성질환 이환(고혈압, 당뇨 등)  
△삶의 질 등으로 총 17개 영역 172개 문  
항이다.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질병관리청  
에서 공표하고, 내년 초 지역사회 건강통  
계집이 발간될 예정이다.

광양=안영준 기자

## 화재 대응 역량 강화... 전 직원 대상 자체 소방훈련

광양시는 지난 10일 화재 대응 역량 강  
화를 위해 광양시청 자위소방대와 전 직  
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자체 소방  
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훈련은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

인명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
마련됐으며, 청사의 화재 발생 상황을 가  
정한 △화재 발생 및 신고 △대피 유도 △  
자위소방대 초기 화재진압 △소화전 및  
소화기 사용요령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.

특히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 
전 자위소방대 자체 화재진화와 대피 유  
도 등 초기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.

훈련 이후에는 소화전과 소화기 사용  
방법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 자  
위소방대와 전 직원의 안전 의식을 높이  
고 실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  
켰다.

광양=안영준 기자